

후백제의 역사문화 새롭게 조명

전주시·가야문화연구소, 후백제 디지털 영상 공모전 수상작 8개 작품 선정
선정된 작품은 향후 시 홈페이지·유튜브에 게재해 후백제 역사 정립에 활용

1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후백제의 역사와 견훤왕의 이야기가 시민들에 손에 의해 디지털 영상으로 깨어났다.

전주시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후백제를 주제로 한 디지털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 8개 수상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와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소장 박장근)가 함께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전주에 대한 시민들의 역사 정립과 왕도(王都)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후백제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토대로 후백제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영상 총 16개 작품이 응모됐다.

시와 가야문화연구소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1차 본선진출 작품 8편을 선정했으며, 지난달 19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후백제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공개 콘테스트를 통해 대상 1편과 최우수상 1편, 우수

상 2편, 장려상 4편 등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조선왕조의 발원지이자 후백제의 도읍, 전주'를 주제로 김병수(77년생, 고창군 거주)씨가 제작한 영상이 '후백제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전문가의 평가와 함께 시민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획득해 후백제 디지털 영상 콘텐츠 공모전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후백제를 사랑한 소년'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한 이호영(94년생, 군산시 거주)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김진해(83년생, 익산거주)씨 △김상운(88년생, 전주시 거주)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장려상은 △강석주(94년생, 안산시 거주)씨 △김정용(86년생, 안산시 거주)씨 △서승민(78년생, 논산시 거주)씨 △조성운(73년생, 전주시 거주)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발공된 후백제 관련 영상들을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후백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전주 구도심 100만명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영상 콘텐츠 공모전 외에도 △고고학으로 후백제를 알리다 국제학술대회 △후백제 궁성 추정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후백제 시민 인문학 강좌 운영 △후백제 견훤대왕 송모제 △전주동초등학교 후백제 상징 조형물 제작 △후백제 매장문화재 조사유적 안내관 제작 △후백제 생산유적 유아동 와요지 긴급발굴조사 △후백제 전주성(동고산성) 사적 지정 추진 등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해 힘써왔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을 차지한 김병수 씨는 "후백제 디지털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후삼국시기 역사에 대한 깊이가 달라졌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비운의 역사로 남은 후백제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전주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에 게재해 후백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 왕도로서의 자긍심을 되찾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새해 '예비 전속 작가제 지원' 사업 첫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예비 전속 작가제 지원 사업'과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은 전업 미술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속작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에 작가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와 함께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작가 공모'와 '화랑 및 비영리 전시공간 공모'다.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과 전속 계약을 하기 원하는 작가를 먼저 모집한 후, 공모를 통해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을 선정해 모집된 작가와 전속 계약을 원하는 단체(화랑 등)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예비 작가'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공모일 기준 이전에 다 단체(화랑 등)와의 전속 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 미술관 전시, 레지던시 경력에 있는 작가에 한해 만 49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예비 작가 지원 단체는 2017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매년 기획전을 2회 이상 열었으면 가능하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0개월간 창작활동비를 일부 지원하고, 단체에게는 전속작가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과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 '작가 공모'는 2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artre@gokam.or.kr)과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www.k-artsharing.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화랑 및 비영리 전시공간 공모'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에)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

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9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은 전문 전시해설사를 육성하고, 관람객들이 미술 전시를 쉽게 이해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해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회장 김혜경)와 함께 진행한다. 31일 오후 6시까지 전자문서 발송 및 전자우편(mhlee@kocaca.or.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뉴시스

전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국악잔치

국립민속국악원, 유아대상 국악극 다시 무대 올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겨울방학 기간 유아들이 국악으로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지난해 제작한 유아 대상 국악극 '숲속음악대 덩따쿵'과 '가얏고 티라노-황금 똥의 비밀'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지난해 선보이며 많은 유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것으로, 이번 공연은 야외활동이 적은 겨울 유아들의 활발한 문화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12일 토요일 오후 1시와 4시에는 유아 대상 국악체합극 '숲속음악대 덩따쿵'이 무대에 오르며, 이 작품은 여우, 토끼, 꼬꼬리, 곰, 늑대로 구성된 숲속음악대 '덩따쿵'이 호랑이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멋진 국악 연주를 들려주는 줄거리의 국악 체합극이다.

19일 오후 1시와 4시에는 '가얏고 티라노-황금똥의 비밀'이 무대에 오르며, 이 작품은 가야금 연주를 좋아하는 티라노가 잡자기 나온 방귀로 꼬꼬가 사는 마을에 가게 되고, 꼬꼬를 통해 황금똥의 비밀을 듣게 된다는 줄거리로 식습관 개선에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화(063-620-2324~5) 및 카카오톡(플러스친구 1:1 대화)을 통해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유아 대상 국악극은 국립민속국악원의



단원들이 직접 극본, 작창, 작곡, 연출을 비롯해 출연까지 극의 전반적인 제작에 참여해 완성한 작품으로, 오랜 기간 창극 공연에 참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완성한 작품들이다.

한편 왕기석 원장은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올해에도 유아 대상 국악극으로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 유아관련 기관에서 공연을 펼치는 등 전국의 어린이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삶의 깊이가 느껴질 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덕진갤러리 36.5서 18일까지

천재운 작가 첫 개인전 열려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양연수)에서 운영 중인 덕진갤러리 36.5(덕진구청 로비)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지역작가인 '천재운 작가 개인전'을 개최한다.

'삶의 깊이가 느껴질 때 그림을 그리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는 천재운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 최근 1년 동안 창작한 300여 작품 중에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작품들로 선정했다.

천 작가는 "특정한 기교를 부리거나, 어떤 사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그저 '내면의 소

리'에 귀 기울여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생각들은 관람자와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이어 오는 2월 18일(월)부터 25일(월)까지 전북도청 기획 전시실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가질 계획이다.

덕진갤러리 36.5는 관공서 청사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선해 지역예술가 및 시민들에게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전시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덕진갤러리 36.5의 대관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으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대관 신청이 가능하며, 대관문의 및 신청은 덕진구 행정지원과(063-270-6251)로 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